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10주. 문학 사건들

•1차시. 불우한 천재의 사랑: <최치원> 1

학습목표

1. 역사적 인물 <최치원> 이야기를 통해 당대를 이해할 수 있다.
2. <최치원>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최치원> 작품 개관

- 작자미상
- 장르 : 전기(傳奇), 애정전기설화
- 출처 :
 - 『수이전』
 - 성임(1421~1484), 『태평통재』 68권, <최치원>
 - 권문해(1534~1591), 『대동운부군옥』 15권, <선녀홍대>
 - 중국 장돈이 편찬, 『육조사적유편(六朝事迹類編)』, <쌍녀분>
- 내용 : 최치원과 귀신과의 하룻밤 사랑이야기
 - 874년경 중국 난징(南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장수현 초현관 앞에 있는 '쌍녀분'과의 기이한 인연 이야기

<최치원> 줄거리

최치원이 당으로 유학을 가서 단번에 과거에 합격해 율수현위를 제수 받았다.

어느 날 현 남쪽의 초현관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곳 앞 언덕에는 쌍녀분이 있었다.

치원은 그 곳 무덤을 찾아가 혼백을 위로하고, 석문(石門)에 '죽은 두 여인을 꿈에라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시를 썼다.

저녁 무렵 한 아름다운 여종(취금)이 붉은 주머니 2개를 들고 나타난다.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은 쌍녀분의 두 여인의 답시로, 최치원의 만남을 수락한다는 내용이었다.

취금이 최치원의 답시를 가지고 사라진 지 얼마 후 갑자기 향기가 나더니

연꽃 같은 두 여인이 나타난다.

<최치원> 줄거리

두 여인은 원래 부호인 장씨의 딸들로, 부모들은 언니 18세, 아우 16세 때에 각각 소금장사, 차장사에게 시집가기를 권유했다. 그러나 자매는 마음에 차지 않아 울적함이 병이 되어 요절하게 됐고, '오늘 최공과 같은 수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최치원과 두 여인은 서로 술과 시를 주고 받았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빼어난 시들이었다.

셋은 연분을 맺게 된다.

치원은 '살아있는 미인의 배필은 되지 못하고, 무덤의 죽은 여인들을 껴안게 되었다'고 탄식하며 이를 기연으로 돌렸다.



<최치원> 줄거리

달이 지고 닭이 울자 두 여인이 떠나면서 쌍녀분에 다시 오게 되면 무덤이나
잘 다듬어 달라고 청하면서 이별한다.

최치원은 다음날 아침 무덤가로 가서 탄식하며 장문의 시를 읊어 자신을 위로하였다.

그 뒤 최치원은 고국으로 돌아오다 길에서 시를 읊었다.

이후 치원은 속세를 떠나고 말년에는 해인사에서 은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최치원> 본문 중

“저와 동생은 장씨의 두 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동산(銅山)처럼 부를 누렸고
금곡처럼 사치를 부렸습니다.

저의 나이 18세, 아우의 나이 16세가 되자 부모님은 혼처를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 장수와 정혼하고 아우는 차 장수에게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남편감을 바꿔 달라고 말하고 마음에 차지 않았다가

울적한 마음이 맺혀 풀기 어렵게 되고 급기야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수재를 만났는데 그대의 기상은 오산처럼 빼어나서 함께 오묘한 이치를 말할 만합니다.

<최치원> 본문 중

이제 세 사람은 얼큰하게 취했다. 치원이 두 여자를 꼬여 말하였다.

"일찍이 노충(盧充)은 사냥을 갔다가 홀연 좋은 짝을 얻었고, 완조(阮肇)는 신선을 찾다가 아름다운
배필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들이 허락하신다면 좋은 연분을 맺고 싶습니다."

두 여자가 모두 허락하며 말하였다....(중략)

치원이 두 여자에게 장난스레 말하였다.

"규방에 가서 황공(黃公)의 사위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무덤가에 와서
진씨(陳氏)여자를 껴안았도다. 무슨 인연으로 이런 만남 이루었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최치원> 본문 중

나중에 최치원은 과거에 급제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다 길에서 시를 읊었다.

浮世榮華夢中夢 뜬 구름 같은 세상의 영화는 꿈 속의 꿈이니,
白雲深處好安身 하얀 구름 자욱한 곳에서 이 한 몸 좋이 깃들리라.

이어서 물러가 아주 속세를 떠나 산과 강에 묻힌 스님을 찾아갔다....

(중략)...

최후에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여 그 형인 큰 스님 현준(賢俊) 및 남악사(南岳師) 정현(定玄)과 함께
경론(經論)을 탐구하여 마음을 맑고 아득한 데 노닐다가 세상을 마쳤다.

<최치원> 본문 중

나중에 최치원은 과거에 급제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다 길에서 시를 읊었다.

浮世榮華夢中夢 뜬 구름 같은 세상의 영화는 꿈 속의 꿈이니,
白雲深處好安身 하얀 구름 자욱한 곳에서 이 한 몸 좋이 깃들리라.

이어서 물러가 아주 속세를 떠나 산과 강에 묻힌 스님을 찾아갔다....

(중략)...

최후에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여 그 형인 큰 스님 현준(賢俊) 및 남악사(南岳師) 정현(定玄)과 함께
경론(經論)을 탐구하여 마음을 맑고 아득한 데 노닐다가 세상을 마쳤다.



<최치원> 이해 및 감상

- 최치원이 무덤에서 나온 두 여자와 하룻밤 정을 나눈 이야기
- 환상적인 애정 전기 설화이자 시애설화(屍愛說話)
- 후대 애정전기소설의 원형(原型)으로 평가
- 최치원은 두 여인이 생전 이루지 못한 한을 풀어주는 해원자((解冤者) 역할
- 두 여인은 최치원이 수재임을 알아주는 인물
- 최치원이 실제 중국 강소성 율수현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천재 최치원의 불우함, 우울함을 읽어낼 수 있는 작품

※ <시애설화 >

- 산 자가 주검을 사랑하는 내용의 설화로 동,서양에 걸쳐 널리 전승된 오래된 이야기
- 『수이전』의 <수삽석남>, 『삼국유사』의 <도화녀비형랑> 등

Quiz로 정리하기

1. 다음 중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귀신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작품에 최치원의 신분이 명시돼 있다.
- ③ 시애적 요소가 있다
- ④ '선녀홍대'로도 불린다
- ⑤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때의 일화와 관련된 문헌설화이다.